

09  
2018

# 재외동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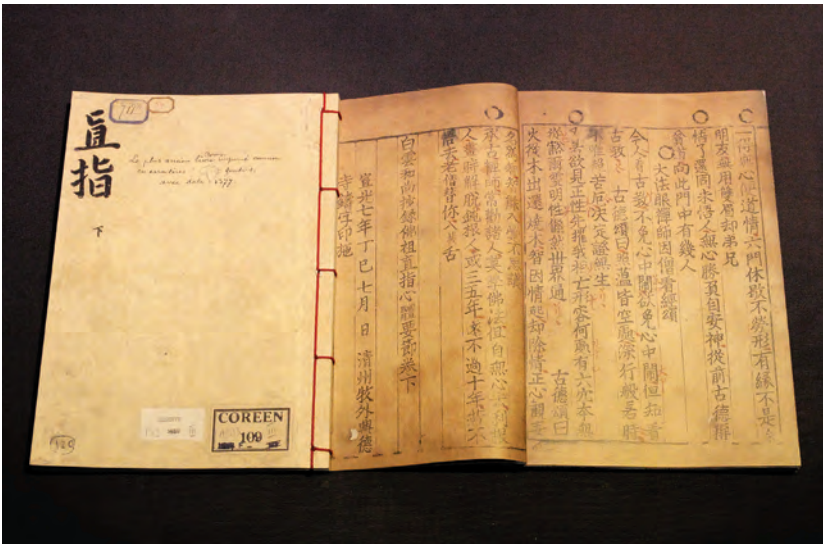
# 창

특집: 재외동포 문학의 창 제20회 재외동포문학상 수상작 선정



# 현존하는 금속활자본 중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책 ‘직지’(直指)

금속활자인쇄술은 정보 대중화 앞당겨 인류 문명에 기여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 직지 하권(영인본)과 복원된 직지활자판 인쇄본.

직지(直指)는 현존하는 금속활자로 인쇄된 책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인 독일 구텐베르크의 성서(1455년)보다 78년 앞섰다. ‘직지’의 원래 책 제목은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이다.

1372년(공민왕 21년)에 백운화상 경한(景閑)이 상·하 2권으로 엮은 것으로 백운화상이 입적하고 3년 뒤인 1377년에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찍어 낸 것이 초인본(初印本)이다. 금속활자본은 현재 상권은 전하지 않고, 하권 1책(총 38장)만이 프랑스 국립도서관 동양문헌실에 전하고 있다. 여주 취암사에서 간행된 ‘직지’ 목판본은 상·하권이 완전한 1책으로 금속활자본만으로는 알 수 없는 체제나 내용을 목판본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직지’의 중심 주제는 ‘직지심체’로 ‘직지인심 견성성불(直指人心 見性成佛)’이라는 선종의 불도를 깨닫는 명구(名句)에서 비롯된 것이다. “참선을 통하여 사람의 마음을 바르게 볼

때, 그 마음의 본성이 곧 부처님의 마음임을 깨닫게 된다”는 뜻이다.

직지가 프랑스로 넘어가게 된 경위는 19세기 말 주한 프랑스 공사 콜랭 드 플랑시가 고서적 수집에 열중했는데, 이 과정에서 직지를 입수한 것으로 보인다. 1911년 경매에 부처져 골동품 수집가 앙리 베베르에게 180프랑에 낙찰되었다. 1950년 베베르의 유족이 이를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기증해 현재에 이른다. 1972년 고(故) 박병선 박사가 ‘직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임을 고증하여 발표했고 그해 ‘세계 도서의 해’ 기념 도서 전시회에 출품되어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2001년 9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됨으로써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공인받게 되었다. 금속활자인쇄 기술은 정보의 대중화를 가속화하고 지식을 독점한 계층의 몰락을 가져오면서 인류 문명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금속활자인쇄술을 발명한 것은 정보를 공유하고 퍼뜨리고자 하는 뜻이 담긴 우리 선조들의 땀과 노력이 깃든 결과물로 평가된다. [▶](#)



- 02 한국의 얼      현존하는 금속활자본 중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책 '직지'(直指) 금속활자인쇄술은 정보 대중화 앞당겨 인류 문명에 기여
- 04 특집            재외동포 문학의 창 제20회 재외동포문학상 대상 수상작 선정 '유적에 핀 꽃'(시) · '동아분식'(소설) · '가방 싸는 여자'(체험수기)
- 06 화제            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한반도 평화, 남북경제공동체 수립이 진정한 광복 동북아 6개국과 미국 함께 하는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제안
- 08 기획            하와이 농업이민보다 40년 앞선 한민족 최초의 해외 개척지 '연해주' "착취 · 기근 피해 황무지에 벼농사 성공... 독립운동의 요람"
- 10 글로벌 코리아    북한과 외국인 최초 투자자문회사 설립에 합의한 천용수 호주 코스트그룹 회장 이 정상급 음악축제 8년째 이끄는 한국인 예술감독 아나이스 리 한국전쟁 참전 미군 유해감식 이끄는 재미동포 진주현 박사
- 12 한민족 공감      남북한, 아시안게임 개 · 폐회식에서 한반도기 들고 공동 입장 남북단일팀, 한달간 동고동락이 이룬 감동의 금 · 은 · 동
- 13 지구촌 통신원    "윤이상 선생 베를린 자택, 23년 만에 예술인 레지던스 · 공연공간으로 꾸며져 "차세대 예술인들의 더욱 창의적이고 대안적인 창조활동 보금자리 될 것"
- 14 동포소식        美 캘리포니아 주 '도산 안창호의 날' 제정... 결의안 주 상원 통과 외
- 17 동포 캘린더    흥공총영사관, 취준생 위한 '해외취업 꿀팁' 유튜브로 공유 외
- 18 유공동포        미 하와이 한인사회 최초 영자 신문 펴내 조선 독립운동 알린 강영각 선생 강명화 애국지사의 5남... 아버지와 사위 등 7명이 훈장 받은 '독립운동 명문가문'
- 19 주목! 차세대      알바 경력 밖에 없는 흡수자가 호주에서 성공하기까지, 자전적 에세이 펴낸 박가영 씨 한국을 떠나 다른 곳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젊은이의 이야기 담아
- 20 OKF 뉴스        멕시코 · 쿠바 한인 후손들, 모국어 제빵 · 제과 직업연수 외
- 21 우리말 배워봅시다
- 22 동포문학        기행 김지영(중국) 동포문학상 중고등부문 최우수상
- 24 고향의 맛 · 멋      중국에서 건너온 '짜장면', 누구나 좋아하는 '한국 음식'으로 재탄생 부드러운 식감에다 값까지 싸 서민들의 외식 문화를 대표하는 음식
- 26 재단공지



**표지 이야기**  
재외동포재단은 '제20회 재외동포문학상' 대상으로 시 부문은 인도네시아 동포 문인기 씨의 '유적에 핀 꽃', 단편소설 부문은 중국동포 이은영 씨의 '동아분식', 체험수기도 중국에서 응모한 신경화 씨의 '가방 싸는 여자'를 각각 선정했다.



발행인 : 한우성      등록번호 : 문화-라 08249  
 발행처 : 재외동포재단  
 본사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55(구 서귀포시 제2청사)  
 전화: 82-64-786-0200, 팩스: 82-64-786-0239,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서울사무소 주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원로 2558 외교센터 4층  
 전화: 82-2-3415-0100, 팩스: 82-2-3415-0118,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 · 편집 : 재외동포재단 홍보조사부 prc@okf.or.kr      제작 : 연합뉴스      인쇄 : 평화당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대한민국 외교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전 세계 740만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재외동포 문학의 창

## 제20회 재외동포문학상 대상 수상작 선정

‘유적에 핀 꽃’ (시) · ‘동아분식’ (소설) · ‘가방 싸는 여자’ (체험수기)



재외동포재단은 ‘제20회 재외동포문학상’ 수상작을 선정해 최근 발표했다.

시·단편소설·체험수기·청소년 글짓기 부문을 공모해 51개국에서 응모한 1천 29편을 심사했고, 시 부문은 인도네시아 동포 문인기 씨의 ‘유적에 핀 꽃’, 단편소설 부문은 중국동포 이은영 씨의 ‘동아분식’, 체험수기도 중국에서 응모한 신경화 씨의 ‘가방 싸는 여자’가 각각 대상에 뽑혔다.

청소년 글짓기 부문에서는 김지영(중·고등부문, 중국) 양의 ‘기행’과 송지나(초등부문, 중국) 양의 ‘비슷하지만 다른 중국에서의 생활’이 최우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청소년의 한국어 작문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한 ‘한글학교 특별상’은 중국 상해포동 한국주말학교와 태국 치앙마이 한글 학교에 돌아갔다.

심사에는 신경림·신달자 시인, 오정희·복거일·구효서 소설가 등 14명의 문단 중진이 참여했다.

시 부문을 심사한 정호승 시인은 “재외동포문학상이 20회

를 이어오면서 동포들에게 문예 창작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모국어를 잊지 않게 해왔다는 점은 큰 공로 중의 하나”라며 “시는 모국어를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문학적 장르로 세계 각지에 사는 동포들이 시를 통해 삶의 질곡을 노래해 그 우열을 가리기는 무척 힘들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대상 ‘유적에 핀 꽃’은 인도네시아 암바라와에 있는 조선인유안부 수용소를 찾아 그 슬픈 역사의 눈물을 노래한 시”라며 “개인의 역사를 통해 한 민족의 역사를 성찰하는 역할을 훌륭하게 그려낸 역작”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단편소설을 심사한 구효서 소설가는 “그동안 꾸준히 작품을 심사해왔는데 올해 소설부문은 ‘재외동포’ 쪽으로 다소 기울어져 있던 천칭이 ‘문학상’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면서 마침내 확인하고도 긴장감 있는 수평을 이루었다”며 “이는 할 말이 많았던 사람이 이제는 말하는 숨씨까지 무력무력 는 셈”이라고 호평했다.

구 소설가는 대상에 선정된 ‘동아분식’에 대해 “특별한 인



1. 재외동포재단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18 문학주간' 행사와 연계해 서울 마로니에 공원 야외무대에서 문학상 심사위원과 역대 수상자가 출연한 라디오 공개방송을 진행했다.
2. 서울 마로니에 공원의 야외무대에 마련된 문학상 라디오 방송에서 축하연주하는 기타리스트 드니 성호와 청중들.
3. 문학상 심사에는 신경림·신달자 시인 등 문단 중진 14명이 참여했다.
4. 동포 작가들의 등용문으로 자리 잡은 '재외동포문학상'이 올해로 20회를 맞이했다.

물이나 사건을 끌어들이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등장인물 모두의 소소한 내적 갈등과 번민, 그리고 신산한 생존기를 담채하처럼 그려내면서도 만만찮은 밀도와 실질적 공감을 끌어낸 수작"이라고 평가했다.

체험수기를 심사한 복거일 소설가는 "체험수기 응모작들은 필자들이 글을 '문학적'으로 다듬으려고 애쓰면서도 자신의 경험을 보다 솔직하고 당당하게 드러냈다"며 "수필을 체험수기로 바꿔서 공모한 것은 결과적으로 성공한 일"이라고 분석했다.

이경자 소설가는 심사위원들이 중국에서 거주한 지 16년이 된 신경화 씨의 '가방 싸는 여자'를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내는 힘도 그가 건너온 역경의 나날들처럼 발랄하고 진취적"이라며 "대상으로 손색없는 작품을 쓰고 존경스런 인생을 살아온 응모자에게 찬사와 축하를 보낸다"고 밝혔다.

문학상 수상자 출신으로 심사에 참여한 김은자(미국)·진경자(독일) 작가는 "동포문학의 현주소를 파악한 뜻 깊은 기회로 타향살이의 상처를 문학으로 승화시키는 탁월함이 돋보인 작품이 많았다"고 평가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함께 3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청소년 부분은 최우수상 수상자에게 100만 원, 한글학교 2곳에 각각 200만 원이 주어진다.

우수상과 가작 등 총 30명의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은 거주

국 관할 공관에서 열린다.

재단은 문학상 20회를 기념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18 문학주간' 행사와 연계해 재외동포문학상 라디오 공개방송을 9월 2일 서울 마로니에공원 야외무대에서 개최했다.

문학상 출신 김은자 시인의 사회로 신달자 시인, 오정희·이경자·박상우 소설가 등이 참여해 동포문학에 대해 토론했고, 벨기에 입양인 출신 기타리스트 드니 성호의 축하 공연도 열렸다.

문학상 심사위원으로도 참여했던 작가들은 이날 무대에서 "정든 모국과 지인들의 곁을 떠나 타국에서 오랜 시간 살아온 이야기와 낯선 땅에서 편견을 이겨내며 뿌리내리는 과정이 한국적 정서와 함께 스며들은 작품이 많았다"며 "심사과정에서 응모자들의 모국어와 외국어에 대한 향수와 갈망이 느껴져 감동을 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제3회 문학상 단편소설 부문 대상을 받았던 박미하일 작가는 이날 무대에서 "문학상 수상은 우리말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해 온 세월을 보상받고 앞으로 더욱 솜씨를 연마할 힘을 얻게 된 계기였다"고 말했다.

야외무대에서는 올해 시 부문 대상작을 수상자 문인기 씨가 즉석에서 낭독하는 자리가 마련돼 호응을 얻었다.

이밖에 역대 수상자들은 재외동포 문학의 창으로 자리 잡은 동포문학상이 20회를 맞은 만큼 역대 수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류할 기회가 있었다면 좋겠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정]

# 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한반도 평화, 남북경제공동체 수립이 진정한 광복 동북아 6개국과 미국 함께 하는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제안

문재인 대통령의 올해 광복절 경축사는 ‘한반도 평화’를 강조하는 메시지로 가득 채워졌다. 문 대통령은 8월 15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제73주년 광복절 및 제70주년 정부수립 기념 경축식에 참석, 20여 분에 걸쳐 경축사를 하면서 ‘평화’를 21차례나 언급했다. 올해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며 한반도 평화 정착 논의가 본격화한 만큼, 광복절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되새기고 이후 평화 프로세스를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날 경축사에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발판 삼아 남북이 경제협력을 가속하고, 이를 통해 공동의 경제번영을 이뤄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연설 도중 ‘경제’라는 단어를 19번 꺼냈고, 이는 ‘평화’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언급된 단어다. ‘남북’은 17차례 언급됐다. 문 대통령은 “남북이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이라며 “평화가 경제”라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한국 경제가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남북의 경제공동체 실현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문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 온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도 맥을 같이 한다.

문 대통령은 “국책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향후 30년간 남북 경험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최소한 17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전면적 경제협력이 이뤄지면 그 효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도 연계시키면서 “이미 금강산 관광으로 8천 900여 명의 일자리를 만든 경험이 있다. 개성공단은 협력업체를 포함해 10만여 명에 이르는 일자리의 보고였다”고 떠올렸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평화가 정착되면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통일경제 특구를 설치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경제협력 청사진을 내놨다.

## 철도·에너지 경제공동체 제안… ‘EU식 평화체제’도 강조

더불어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 하는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제안하면서 “우리 경제지평을 북방 대륙까지 넓히고, 동북아 상생번영의 대동맥이 돼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남북 경제 번영의 모델로 유럽의 사례를 언급했다는 점이다.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제안하는 대목에서 “1951년 전쟁방지, 평화구축, 경제재건이라는 목표 아래 유럽 6개국이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창설했다”면서 “이 공동체가 이후 유럽연합(EU)의 모체가 됐다”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를 튼튼한 기반으로 삼아





4

서 철도로 동북아 국가를 잇고 나서 이를 에너지 공동체를 넘어 경제 공동체로 발전시키는 EU와 같은 체제로 발전시켜나가겠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뉴욕 유엔총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연 기자간담회에서 비슷한 생각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지금처럼 남북이 대치하고 동북아 전체가 대치하는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유럽연합처럼 동북아 전체가 경제 공동체, 다자적 안보협력체가 돼야 한다”며 “그래야 근원적·항구적 평화체제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궁극적으로 구상 중인 이런 경제협력의 선결 조건으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책’을 강조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 “완전한 비핵화 이뤄져야” 경험 선결 조건... ‘여성 독립운동’ 자세히 언급

연설에서 ‘비핵화’라는 단어는 7차례 등장했다. 문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돼야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치적 통일은 멀었더라도 남북 간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신중한 모습도 보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여성 독립운동’을 자세히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여성들은 가부장제와 사회, 경제적 불평등으로 이중 삼중의 차별을 당하면서도 불굴의 의지로 독립운동에 뛰어 들었다”며 “정부는 여성과 남성, 역할을 떠나 어

떤 차별도 없이 독립운동의 역사를 발굴하겠다. 묻혀진 독립운동사와 독립운동가의 완전한 발굴이야말로 또 하나의 광복의 완성”이라고 했다. 아울러 “평양 평원고무공장의 여성노동자 강주룡”, “해녀 항일운동을 벌인 고차동·김계석·김옥련·부덕량·부춘화” 등으로 여성들의 이름을 직접 호명하기도 했다. 이는 최근 국내에 성(性)을 둘러싼 사회 갈등이 격화한다는 점을 고려, 정부가 성 평등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날 연설에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나 독도 문제 등 일본과 과거사에 대한 언급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문 대통령은 “친일의 역사는 결코 우리 역사의 주류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독립운동은 3·1운동을 거치며 국민주권을 찾는 치열한 항전이 있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우리의 나라를 우리의 힘으로 건설하자는 불굴의 투쟁을 벌였다”면서 ‘임시정부 법통’을 거듭 강조했다. [\[향\]](#)

1. 문재인 대통령이 8월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열린 제73주년 광복절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2. 문 대통령이 제73주년 광복절 및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에서 고(故) 손용우 선생에게 수여되는 건국훈장 애족장을 부인 김경희 씨에게 전달하고 있다.
3. 문 대통령이 8월 15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열린 제73주년 광복절 및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을 마친 후 국가기록특별전을 관람하고 있다.
4. 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제73주년 광복절 및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 하와이 농업이민보다 40년 앞선 한민족 최초의 해외 개척지 ‘연해주’

## “착취·기근 피해 황무지에 벼농사 성공… 독립운동의 요람”

러시아 공식 문서에는 한민족이 연해주에 살았다는 기록이 1864년에 등장한다. 그해 9월 21일 남우수리스크 포시에트지구 노브고로드 경비대장인 레자노프는 상급 지휘관인 해군 소장 카자케비치에게 “함경도 무산 출신 최운보와 경흥 출신 양응범이 이끄는 14가구 65명이 올 1월 이주해 포시에트의 지신허(地新墟·치진허) 마을을 개척하며 농사를 짓고 있다”고 보고했다. 실제 이주는 그전에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지만, 이 지역 고려인들도 여기에 근거해 이주 기념행사를 열어왔다. 착취와 기근 등을 피해 두만강을 넘는 조선인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 1867년 1월에는 185가구 999명에 이르렀다. 1869년에는 조선 북부 지방에 흉수로 인한 ‘기사홍년’이 발생해 함경도 농민 6천500여 명이 대거 이주했다. 1897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한인 숫자는 2만6천 명을 넘어섰고 이 가운데 일부는 중앙아시아와 유럽으로도 진출했다.

러시아인들은 자국으로 이주한 조선인을 ‘코리안’이라는 뜻의 ‘카레이즈’ 혹은 ‘카레이스키’라고 불렀다. 당시 국호는 조선이었지만 서양에서는 코리아라고 불렀으니 한인들도 러시아인이 부르던 말을 직역해 조선인 대신 고려인을 자처했다. ‘유라시아 고려인 150년-디아스포라의 아픈 역사’의 저자인 원로 언론인 김호준 씨는 “한인이 연해주로 집단 이주한 것은 미국 하와이 농업이민보다 40년 앞선 우리 민족 최초의 해외 개척사”라고 평가했다. ‘고려인 러시아 이주 150년 한반도 한민족 통사-까레이스키’를 펴낸 이창주 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 석좌교수는 “연해주가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신천지여서 소작이 아닌 자기 경작을 할 수 있었고, 일본인이나 중국인보다는 러시아인에게 적대감이 적어 연해주를 선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려인에 대한 러시아 당국의 태도는 들쭉날쭉했다. 고려인의 뛰어난 근면성과 농사 기술을



높이 사 농경지 개발에 이용하려는 총독이 있는가 하면, 고려인들이 토지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집단 의식이 높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며 반고려인 정책을 취한 총독도 있었다.

### “빠앗긴 국권 되찾자” 영웅들의 활동무대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1910년 강제합병이 이뤄지던 시기를 전후해서는 빠앗긴 국권을 되찾고자 우국지사들이 대거 건너가 연해주는 항일독립운동의 요람이 됐다. 간도관리사를 지내다 의병을 조직해 일본군과 싸우던 이범윤은 러일전쟁 직후 연해주로 옮겨 국내 일본군 침공작전을 펴고, 안중근도 그와 함께 전투를 펼치다가 이토 히로부미 처단 계획을 세워 거사에 성공했다. 만주에 서전사숙을 세워 항일지사를 길러내던 이상설은 헤이그 특사의 임무를 마친 뒤 연해주에서 권업회와 동지회를 결성하고 대한광복군정부를 세우는 등 애국혼을 불살랐다. 그와 함께 헤이그 특사로 파견된 이위종도 한때





1. 러시아 연해주의 '자신하 마을 옛터' 기념비. 이 비석은 2004년 고려인 러시아 이주 140주년을 맞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공연한 가수 서태지가 헌정한 것이다.
2. 쇼핑 거리로 변한 연해주의 항일 운동 유적지.
3. 블라디보스토크의 신한촌 기념탑. 세 기둥의 가운데는 남한, 왼쪽은 북한, 오른쪽은 재외동포를 상징한다고 한다.
4. 2015년 7월 15일 러시아 우수리스크 수이푼강 인근 이상설 선생 유힬비 앞에서 추모제가 열리고 있다. 1917년 타계한 고인의 유언에 따라 유골이 화장돼 수이푼강에 뿌려졌고, 그 추정 지점에 광복회와 고려학술문화재단이 2001년 10월 유힬비를 세웠다.


1919년 3·1운동 이후 독립군 세력이 속속 연해주에 집결하자 1920년 4월 일본은 블라디보스토크의 신한촌을 급습해 한인 300여 명을 학살하고 방화와 파괴를 저질렀다. 이른바 '4월 참변(신한촌 참변)'으로 이때 최재형이 붙잡혀 총살됐다. 1921년 6월에는 국제공산주의 조직 코민테른의 지원을 업은 고려공산당(이르쿠츠크파)과 한인의 지지가 두터운 민족주의 계열의 한인사회당(상하이파)이 주도권 다툼을 벌이던 중 적군과 이르쿠츠크파가 상하이파를 공격해 300명 넘게 숨졌다. 이 사건이 '자유(스보보드니)시 참변(흑하사변)'이다. 이로 인해 독립군 세력이 크게 약화했다. 더욱이 1922년 일본군이 물러나자 적군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 독립군을 무장해제했다.

이곳에서 숙부 이범윤과 함께 활동했다. 이동휘와 이동녕은 북간도에서 민족의식을 고취하며 국권 회복을 꾀하다가 일제의 위협이 노골화하자 연해주로 옮겨 이상설 등과 독립투쟁을 이끌었다.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는 연해주와 만주를 넘나들며 일본군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러시아 이민 초기 연해주에 정착해 사업을 벌인 최재형은 모은 돈과 구축한 네트워크로 독립운동과 민족교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됐다.

### “신한촌·자유시 참변 거치며 독립군 세력 약화”

1917년의 러시아혁명은 연해주 한인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동휘를 비롯한 민족주의적 사회주의자들과 김알렉산드라·오하목 등 한인 2세 볼셰비키 당원들은 1918년 5월 13일 아시아 최초의 사회주의 정당인 한인사회당을 결성했다. 사회주의 계열의 한인 의병들은 러시아혁명군(적군)에 가담해 그해 4월 블라디보스토크에 상륙한 일본군과 싸웠다.

### “고려인 20만 명까지 불어나… 신문·학교·극단도 등장”

독립 열기는 퇴조했지만, 연해주로 이주하는 한인은 더욱 불어났다. 1930년대 무렵에는 20만 명 넘게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고려인의 집단 거주지에는 한글 신문과 잡지가 발간되고 공연단체도 등장했다. 아마추어 공연단체들을 토대로 1932년 창단된 것이 지금도 카자흐스탄에서 명맥을 잇고 있는 고려극장이다. 한국어로 교육하는 학교도 곳곳에 설립돼 고려인 교사들을 가르치는 사범대까지 생겨났다. 1922년에는 45개이던 한인 학교가 1927년에는 267개로 늘어났다. 벼 재배의 북방한계선을 높여놓은 것은 전적으로 고려인들의 공이다. 기록상으로는 1905년 연해주에서 본격적인 벼농사가 시작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러시아인들은 수리시설도 없는 황무지에서 벼농사를 지으려는 것을 무모하게 여겼지만, 고려인들은 보란 듯이 성공했고 끈질긴 노력으로 박토를 옥토로 바꿔나갔다. 

## “북한에 투자하고 싶으세요? 저와 상의하세요”

북한과 외국인 최초 투자자문회사 설립에 합의한 **천용수** 호주 코스트그룹 회장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1993년 평양에 업무용 건물을 지은 인물’, ‘1995년 북한 최초의 합영회사를 세운 투자자’, 천용수(65) 호주 코스트그룹 회장을 칭하는 말이다. 그런 그에게 ‘외국인 최초 북한 투자자문회사 설립’이라는 이력이 추가됐다.

천 회장은 7월 17일 평양에서 조선대외경제투자협력위원회와 ‘조선투자자문회사’ 설립을 위한 합의를 체결했다. 북한으로부터 대(對)북한 무역 및 투자의 유일한 창구로 지정받은 것이다.

그는 “지금까지 북한에 투자하는 모든 기업은 조선대외경제투자협력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우리 회사를 통하면 바로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북한을 210회 방문했어요. 한번 갈 때마다 1주일 이상 체류했으니 최소 1천500일 정도 북한에서 살았다고 봐야죠. 솔직히 북한의 투자환경에 대해

저만큼 많이 아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제가 경험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투자자문회사를 잘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길라잡이’, ‘나침반’ 역할을 하겠습니다.” 천 회장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북한 투자에도 호재가 되고 있다고 강조한다. “한민족에게 기적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로 최근 상황을 대변한다.

“북한 주민들은 한결같이 경제를 일으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로 모든 분야에서 노력하고 있죠. 저는 투자 컨설팅을 제대로 해서 그들의 바람대로 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했으면 합니다. 많은 투자자가 북한에서 기회를 찾았으면 해요. 특히 재외동포들이 나서준다면 좋겠지요. 북한과의 사업은 마치 백지에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천 회장은 북한을 ‘공동 번영해야 하는 파트너’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문한다. 그러면서 “북한에도 컴퓨터 사용이 보편화했고, 평양에 하루 24시간 전기 공급이 이뤄지며 통신도 원활하다”고 상황을 전했다.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회장을 지냈고 2004년에는 회원 162명을 이끌고 북한을 방문해 평양 무역상담회를 열었다.



## “실력 있는 한국 젊은 예술가, 伊 무대에 알리는 역할 하고 싶어”

伊 정상급 음악축제 8년째 이끄는 한국인 예술감독 **아나이스 리**

이탈리아 로마를 조금 벗어난 움브리아 주의 언덕 위에 동화처럼 자리 잡고 있는 나르니는 여름이면 전 세계에서 모인 음악가들이 빚어내는 화음으로 도심 전체가 들썩인다. 2011년 첫발을 댄 ‘나르니 국제 음악제 · 마스터클래스’가 매년 8월이면 시내 곳곳에서 펼쳐지며 도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기 때문이다. 8월 29일 밤 대장정의 막을 내린 제8회 축제에는

세계 22국에서 약 220명의 음악가와 음악 전공 학생들이 모여든 가운데, 50여 개의 수준 높은 콘서트가 3주 동안 쉴 새 없이 이어졌다. 특히 8월 27일 밤, 축제의 화룡점정이 된 가장 큰 무대의 서막을 한국인의 정서가 농축된 아리랑의 선율로 연 것은 현지 관객들은 물론, 연주에 참여한 음악가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나르니 음악제의 가장 큰 무대의 시작을 아리랑 선율로 장식하자라는 생각은 한국인 예술감독인 아나이스 리(53·한국명 이연승) 씨에게서 나왔다. 서울예고 졸업 후 1984년 이탈리아로 건너와 로마의 음악 명문 산타 체칠리아에서 성악을 전공한 이 씨는 이탈리아인 남편과 함께 나르니 음악 축제를 처음 만들고, 지난 8년 동안 이 축제를 정성껏 가꿔 온 주인공이다.

저명한 음악평론가이자 음악극 작가인 남편 레나토 키에사 씨와 결혼 후 이어진 출산과 육아 때문에 ‘프리마돈나’의 꿈은 멀어졌으나, 대신 후진 양성에 힘을 쏟았다. 5년 전 남편이 별세하면서 힘든 시간을 겪기도 했지만, 이 씨에게는 음악을 전공하는 두 아들과 자식이나 다름없는 나르니

음악축제가 있었기에 힘을 낼 수 있었다.

이 씨는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음악제를 꾸릴 힘이 생긴 만큼 앞으로는 고국의 문화를 이탈리아에 소개하고, 이탈리아에서 활동하는 한국의 젊은 예술가들을 발굴해 무대에 설 기회를 주는 역할도 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8월 27일 프란체스코 데 레보티 나르니 시장에게서 공로상을 받았다(사진).



## “친가·외가 모두 이북에서 내려와 미군 유해감식 작업 의미 남달라...”

한국전쟁 참전 미군 유해감식 이끄는 재미동포 **진주현** 박사

“지금은 구순을 넘긴 저의 할아버지가 1950년 흥남철수 때 남쪽으로 내려온 피란민입니다. ‘장진호 전투’에서 숨진 미군 참전용사들이 대부분 18~23세였으니, 당시 제 할아버지와도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한국전쟁 참전 미군의 유해감식을 책임진 제니 진(39·한국명 진주현) 박사는 8월 8일 미 워싱턴에서 “개인적으로도 감회가 남다른 작업”이라고 말했다.

하와이에 본부를 두고 있는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 소속으로, 한국전쟁 참전용사 신원확인 작업인 ‘한국전쟁 프로젝트’(Korean War Project)를 이끌고 있다. 서울에서 고고학을 전공하고 미국에서 인류학 석·박사 과정을 밟았다.

인류학자인 진 박사는 2010년 DPAA의 전신인 합동전쟁포로·실종자 확인사령부(JPAC)에 합류해 한국전쟁 참전 미군의 유해감식을 맡아왔다. 친가와 외가 모두 이북에서 내려왔다는 진 박사로서도 이번 유해감식 작업은 더욱 의미가 남다르다.

그는 “미군유해를 전달받기 위해 지난달 27일 미군 수송기를 타고 북한 원산 공항에 내렸다”면서 “외할머니가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원산에서 (북한군에) 잡혀서 고생을 많이 했고 들었기에 감회가 새로웠다”고 말했다. “이곳(DPAA)에서 일을 하다가 미군유해가 장진호에서 많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문득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언제 무슨 배를 타고 내려왔는지를 여쭙보기도 했어요. 신원이 확인된 유해의 3분의 1가량은 ‘장진호 전투’에서 전사한 분들인데, 당시 대부분 18~23세로 저의 할아버지와 비슷한 연배입니다.”



이번에 55개 관에 담겨 송환된 미군유해들도 상당수 장진호 일대에서 발굴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 해병대원과 중공군이 2주에 걸쳐 치열한 전투를 벌인 장진호 일원에는 1천구가 넘는 미군유해가 묻혀 있을 것으로 미국 국방부는 추산하고 있다. **[장]**

# 남북한, 아시안게임 개·폐회식에서 한반도기 들고 공동 입장

남북단일팀, 한달간 동고동락이 이룬 감동의 금·은·동

스포츠 남북단일팀이 열매를 맺는 속도는 여느 남북교류 분야 중에서 가장 빨랐다. 국제종합대회 사상 두 번째로 결성된 남북단일팀이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찬란한 성과를 냈다. 지난 2월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국제종합대회 최초로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꾸린 남북은 6개월 후 열린 아시안게임에선 3개 종목으로 '코리아'의 영역을 넓혔다.

조정, 카누 용선(드래곤보트), 여자농구에서 훗날 통일의 밑거름이 될 단일팀이 탄생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4월 27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후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다. 선언엔 올해 아시안게임 남북 공동 진출이 포함됐다. 공동 진출은 개·폐회식 공동 입장, 단일팀 구성 등을 망라하는 용어로 해석됐다.

남북은 6월 1일 남북고위급회담을 열어 아시안게임 공동 참가 논의에 합의했고, 6·18 남북체육회담에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아경기대회 개·폐회식 공동 입장 및 단일팀 구성, 참가에 합의했다. 이 회담에서 역대 국제종합대회 11번째 개회식 공동 입장과 방식 등이 확정됐다.

아시안게임을 주관하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와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의 협조를 얻어 남북은 6월 28일 3개 종목 단일팀을 구성했다. 이에 따라 북측 여자농구·조정·카누 선수들이 7월 29일 일제히 방남해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과 충주 국제조정경기장에서 남측 선수들과 호흡을 맞췄다. 감독 8명과 선수 26명 등 34명의 북측 선수단이 방남했다.

우리 측 감독 5명과 선수 33명을 합쳐 감독·선수 포함 72명의 남북단일팀 '코리아'가 구성됐다.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선수들은 촉박한 시일 탓에 겨우 보름 남짓 손발을 맞추고 평창동계올림픽에 나섰다. 아쉽게도 1승도 못 올렸지만, 평화와 감동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파했다. 이들보다 합동 훈련 기간이 조금 길었던 이번 단일팀은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이라는 값진 결실을 수확했다. 친분, 용어 모두 익숙하지 않았지



8월 18일 오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겔라 봉 카르노(GBK)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개막식에서 남북 선수단이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하고 있다.

만, 한민족이라는 동질감으로 선수들은 금세 분단의 벽을 넘었다.

감동의 서막은 카누 용선이 열어젖었다. 8월 25일 인도네시아 팔렘방 자카바링 스포츠 시티의 조정 카누 레가타 코스에서 열린 카누 용선 여자 200m 결선에서 동메달을 따냈다. 남북이 종합대회에서 합작한 첫 번째 메달이었다.

그로부터 하루 뒤 마침내 기다리던 금메달이 나왔다. 카누 여자 남북단일팀은 26일 카누 용선 500m 결선에서 우승해 시상대 정상에 올랐다. 파란색 한반도기가 게양되고 아리랑이 국가로 연주되는 역사의 한 페이지가 완성됐다. 남자들도 질세라 힘을 냈다. 용선 남북단일팀은 남자 용선 1,000m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조정에선 아쉽게 단일팀의 합작 메달이 나오지 않았지만, 여자농구가 대미를 장식해 비어 있던 단일팀의 은메달을 채웠다. 불과 한 달 남짓 호흡한 남북 선수들이 땀으로 이뤄낸 결정체라는 점에서 코리아의 메달은 각별하다. **창**

# “윤이상 선생 베를린 자택, 23년 만에 예술인 레지던스 · 공연공간으로 꾸며져

“차세대 예술인들의 더욱 창의적이고 대안적인 창조활동 보금자리 될 것”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작곡가 고(故) 윤이상 선생의 독일 베를린 자택이 젊은 예술가들의 레지던스와 공연공간으로 새로 단장됐다. 윤이상평화재단은 6월 20일 윤이상하우스 개관식 및 개관음악회를 개최했다.

베를린 중심가에서 남서쪽으로 30km 정도 떨어진 클라도우에 있는 윤이상하우스는 예술을 공부하는 학생과 전문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저렴한 가격의 장·단기 레지던스로 운영된다. 또한, 젊은 음악가들의 하우스콘서트 장소로 활용되고 인문학 강좌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윤 선생 서거 23년 만에 음악을 위한 공간으로 꾸며진 것이다.

윤이상하우스 정원에는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윤 선생의 고향인 경남 통영에서 가져와 베를린의 윤이상 묘역에 심은 동백나무도 옮겨져 있다. 베를린 카토우 공원묘지에 있던 윤 선생의 유해는 지난 2월 통영으로 이장됐다.

정부는 2007년 윤이상 자택 부지 매입비 및 개·보수, 아카이브 구축 사업에 8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했고, 윤이상평화재단은 지금까지 정부 예산과 후원금 등으로 딸 윤정 씨로부터 자택을 매입해 보수 작업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재정문제 등으로 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방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정진현 윤이상하우스 운영실장은 “윤이상하우스는 윤 선생의 예술혼과 민족혼을 바탕으로 차세대 예술인들이 더욱 창의적이고 대안적인 창조활동의 보금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범구 주독 한국대사는 축사에서 “윤 선생이 고향을 떠난 지 49년 만에 그리던 고향 통영에 잠들어 있지만, 고인의 음악에 대한 사랑과 정신은 아직도 이곳 어딘가에 머물러 있으리라 믿는다”라며 “윤이상하우스가 한국과 독일의 뜻깊은 문화교류의 장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개관식에는 한명숙 전 총리와 정 대사, 권세훈 주독 한국문



윤이상하우스 개관식에서 음악 공연이 진행되고 있다. 생전의 윤이상 선생(사진·윤이상평화재단 제공)

회원장, 이은정 베를린자유대 한국학과장, 탁무권 윤이상하우스 이사장, 윤이상 선생의 제자인 지휘자 어빈 코크 라파엘 등이 참석했다. 베를린을 근거지로 음악 활동을 펼친 윤 선생은 1967년 중앙정보부에 의해 조작·과장된 동백림(東伯林·East Berlin)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고초를 겪었다.

이후 국내에서는 군사독재 시절 음악성을 평가받지 못했지만, 외국에서는 ‘동양과 서양의 음악기법 및 사상을 융합시킨 세계적 현대 음악가’, ‘유럽의 현존 5대 작곡가’ 등으로 불렸다. **장**

이광빈 연합뉴스 베를린 특파원

## 美 캘리포니아 주 ‘도산 안창호의 날’ 제정... 결의안 주 상원 통과 탄생일인 11월 9일 올해부터 선포... 외국인 업적 기린 날 드물어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의회 상원이 ‘도산 안창호의 날 제정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도산 선생의 탄생일인 11월 9일을 올해부터 도산 안창호의 날로 선포하게 됐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미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의 업적을 기리는 날이 제정된 것은 매우 드문 일로, 역사적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캘리포니아 주 상·하원 공동으로 추진돼온 ‘도산 안창호의 날 제정 결의안(ACR 269)’은 8월 13일 주 하원 통과에 이어 28일 상원 전체회의에서도 찬성 39, 반대 0, 기권 1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됐다. 이번 결의안은 캘리포니아 주 하원 최석호 의원, 샤론 퀴크 실바 의원, 짐



도산 안창호 선생이 미국에 세운 최초의 한인촌 ‘파차파 캠프’.

패터슨 의원, 호세 메디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앞서 주 하원은 “도산 안창호 선생은 국내와 해외에서 모두 한국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애국지사 중 한 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1878년 태어난 그는 한국인들에게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와 같은 존재”라고 밝힌 바 있다. 주 의회는 도산 선생이 10대부터 서울의 미션스쿨에 다니며 조국의 현대적 교육을 꿈꿔왔으며, 1902년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건너와 초창기 한인 이민들의 미주 정착을 이끈 사실을 소개했다. 결의안은 “도산의 리더십은 미국 사회,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한인커뮤니티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 아시아계 첫 미 해군 장교, 도산 안창호 딸 안수산 경상대 대학원생 박현순 씨, 안 여사 관련 국내 첫 연구논문 발표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의 딸 안수산(1915~2015) 여사를 연구한 국내 첫 논문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경상대학교는 대학원 사학과 박현순(49) 씨가 ‘코리아인 아메리칸 안수산 연구’로 문학석사 학위를 받는다고 8월 20일 밝혔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에서 도산 선생의 맏딸로 태어난 안수산은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미 해군에 입대해 아시아인 아메리칸 여성 최초 해군 장교, 미국 여성 최초 포격술 장교가 됐다. 해군 대위로 제대한 뒤에는 국가안전보장국 내 중요부서 책임자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후 한인 이민 개척자들의 역사를 보존하면서 ‘코리아인 아메리칸 공동체’ 발전과 성장을 위해 모든 삶을 바쳤다. 박 씨는 “세계사적 맥락에서 간과된 여성 인물을 찾고자



생전의 안수산 여사와 아들 필립 커디.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발굴한 인물이 안수산이었다”며 “안수산은 도산 안창호의 딸이기도 하지만 중첩된 차별과 억압이 만연했던 시대에 한계를 극복하고 미국 주류 사회에 속한 여성 인물이기도 했다”고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 박 씨는 “현재 미국 사회에서 안수산은 만연했던 성차별과 인종차별 장벽을 낮추는 것으로 미국 역사 진보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한마디로 개척자적 삶을 살았던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박 씨는 지난해 미국으로 건너가 안수산 여사의 아들 필립 커디를 만나 도움을 받았다. 국내는 물론 미국에서 한 번도 연구된 적 없는 안수산에 관한 논문을 쓰기 위해 신문기사와 전기, 인터뷰에 주로 의존해야 했다.

## “취업난 한국 청년, 중국서 일자리 찾아보세요” 중국 동부지역서 해외 첫 청년일자리지원 사업 출범

“중국에서도 일자리 기회를 찾아보세요.” 취업난 속 한국 청년들의 해외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사업이 중국에서 시작됐다. 중국 동부지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7월 13일 중국 장쑤(江蘇)성 옌청(鹽城)에서 한국 청년들의 채용을 확대하고 이들의 현지 취업을 지원하는 ‘한·중 청년 일자리 희망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우선 상하이(上海)시, 저장(浙江)성, 장쑤(江蘇)성, 안후이(安徽)성 지역의 20개 교민회와 상공회별로 연간 50~100명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목표다. 특히 이 지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최소 1명 이상의 한국 청년을 채용하는 운동을 벌이게 된다.

중국 동부의 한국 교민회·상공회 모임인 화동(華東)지역연



중국 동부지역 진출 한국 기업들이 한국 청년들의 채용을 확대하고 현지 취업을 지원하는 ‘한·중 청년 일자리 희망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고 현지에 특화된 중간관리자, 영업, 마케팅, 재무회계, 설계 등의 직무 교육과정도 개설할 예정이다. 화동지역은 7천여 개 한국 기업이 진출한 곳으로 한·중 교역의 60%가 이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합회(회장 이상철)가 주도하는 것이지만 상하이 주재 한국총영사관, 코트라 상하이관, 한국무역협회 상하이지사 등 공공기관과 이 지역 한국 기업들도 대거 참여하는 사업이다. 해외에서 이런 청년 일자리 사업이 벌어지는 것은 중국이 처음이다.

위원회는 또 한국 청년들의 중국 진출 방법을 소개하는 설명회와 함께 취업·창업 박람회, 강연, 세미나 등을 개최하

## “중남미는 블루오션”... 멕시코서 첫 채용·창업 통합 박람회 8개국 진출 한국계 기업 23곳 참가... 150여 건의 현장·화상 상담 진행

중남미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과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인 ‘일자리 축제’가 멕시코에서 열렸다. 주멕시코 한국대사관과 코트라(KOTRA) 멕시코시티무역관은 8월 24일 멕시코시티에서 국내 청년들의 중남미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해외 창업활동을 돕기 위한 ‘멕시코·중남미 취업·창업 박람회’를 개최했다. 지금까지 멕시코 등 일부 국가에서 개별적으로 취업 또는 창업 박람회가 열렸지만, 취업과 창업을 아우르고 중남미 전체를 대상으로 한 통합 행사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코트라 멕시코시티 케이-무브(K-Move) 센터가 기획한 행사에는 삼성물산, 신한은행 등 멕시코 진출기업 14개사와 파



주멕시코 한국대사관과 코트라 멕시코시티무역관이 8월 24일 멕시코시티에서 개최한 ‘멕시코·중남미 취업·창업 박람회’에 참가한 기업들이 취업 희망자들을 상대로 현장 면접을 하고 있다.

업을 각각 진행했다. 한국인 직원 수요가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현지 교민 수가 적고 인력공급이 부족해 스페인어 구사가 가능한 한인 인력이 아쉬운 상황이다.

나마 유니대우전자, 칠레 남동발전 등 중남미 7개국에 진출한 9개사가 참가, 총 150여 건의 현장·화상 상담을 진행했다. 행사와 함께 열린 케이-무브 세미나에서는 한인 전문가가 중남미 노동시장 동향과 노동법을 설명했으며, 일부 구인 기업 인사담당자는 자사의 채용직종 인재를 직접 소개했다.

참가 기업들은 현장을 직접 방문한 멕시코 체류 청년들과는 1대1 면접을, 한국서 지원한 취업희망 청년들과는 화상 면

## 쿠바서 애국가·아리랑 합창... 한인 후손들 73주년 광복절 행사 마탄사스서 첫 개최... 한인 후손 문화원 개원 5주년 행사도 열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미 카리브 협의회는 8월 12일 쿠바 북부 마탄사스에서 한인 후손 120여 명과 자문위원 30명 등 총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73주년 광복절 및 한인 후손 문화원 개원 5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애국가 제창, 오병문 민주평통 중미·카리브 협의회장의 개회사, 독립운동가 임천택 선생의 딸로 알려진 마탄사스 지역 대표 마르타 임(Marta Lim)의 축사, 후손들의 문화 공연으로 이어졌으며 참석자들의 만세 삼창과 아리랑 합창 속에 막을 내렸다. 참석자들은 이어진 점심에 민주평통이 준비한 잡채, 전, 김밥, 오이무침, 제육볶음 등 한국 음식과 쿠바 전통 통째지 구이인 레촌을 다 같이 나눠 먹으면서



기념촬영 하는 민주평통자문회의 중미 카리브협의회 자문위원들과 한인 후손들.

따뜻한 정을 나누기도 했다.

기념식은 지금까지 수도 아바나에 있는 호세마르티 문화원(한인 후손 문화원)에서 열렸지만, 올해에는 한인 후손이 가장 많이 사는 마탄사스 지역에서 처음 개최됐다. 쿠바 한인 후손들은 마탄사스를 비롯해 아바나와 카르데나스 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다. 민주평통 중미 카리브 협의회는 이번 광복절 행사와 함께 한인 후손들에게 옷, 신발, 양말, 치약과 칫솔 등 생필품과 장학금을 전달했다. 행사를 위해 중미 카리브 협의회 소속 15개 국가 중 멕시코,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파나마, 콜롬비아, 트리니다드 토바고, 쿠바 등 7개국 자문위원들이 각종 생필품을 후원했다.

## “아프리카 물 걱정 덜어줄게요”... 한인들 탄자니아, 말라위 등에 우물 선물

해외 한국인들이 아프리카 오지에 희망을 전하는 ‘우물파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8월 2일 아프리카중동한인회총연합회(회장 임도재)와 아프리카중동한상총연합회(회장 김점배)에 따르면 전날 동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한인들이 학교 2곳에 우물을 기증하는 ‘평화의 샘물’ 개수식이 열렸다. 탄자니아 프와니주(州)에서 올해 7월 개교한 주후디 초등학교와 음완데게 중학교에 우물을 1개씩 만들어 학생들의 물 걱정을 덜어준 것이다. 두 학교는 초원을 개간한 땅에 지어졌고 수도가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시설이 열악하다. 그동안 학생들이 먼지 많은 학교에서 잘 씻지도 못했는데 우물이 생기면서 위생 및 식수 문제를 해결할 수



탄자니아에서 열린 ‘평화의 샘물’ 개수식(사진·아프리카중동한인회총연합회 제공)

있게 됐다. 탄자니아 우물파기에는 아프리카 한인들뿐 아니라 박종범 민주평통 유럽 부의장의 후원도 큰 힘이 됐다.

한국인의 아프리카 사랑이 담긴 우물은 탄자니아뿐만이 아니다. 8월 17~18일 말라위에서는 오지에 있는 5개 마을에 우물을 기증하는 행사가 진행됐다. 조용덕 전 말라위 한인회장은 “말라위에서는 마을마다 우물이 있지만, 펌프 등의 문제로 70% 정도가 고장이 난 상태”라며 “5개 마을에 우물을 기증하면서 2만 명이 넘는 주민이 혜택을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말라위에 이어 8월 23일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한인들의 ‘평화의 샘물’ 개수식이 열렸다. **창**



**홍콩총영사관, 취업생 위한 '해외취업 꿀팁' 유튜브로 공유**

주홍콩 한국 총영사관(총영사 김원진)은 취업준비생들에게 알찬 정보를 제공하고자 해외취업에 성공한 취업 선배들의 인터뷰를 시리즈로 진행해 이를 공간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게재하고 있다.



인터뷰 시리즈의 제1탄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미디어 기업 블룸버그의 맹정수(사진) PD를 인터뷰했다. 인터뷰 동영상은 홍콩총영사관 홈페이지 경제·통상 메뉴의 청년취업 지원 항목이나 유튜브([https://youtu.be/Tw\\_3wkEnNUQ](https://youtu.be/Tw_3wkEnNUQ))에서 시청할 수 있다.

**광주고려인마을, 고려인 인문사회연구소 개소**

광주고려인마을은 8월 10일 광주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마을 청소년문화센터에서 고려인 인문사회연구소를 열었다. 연구소는 고려인의 역사와 인문사회 전반을 연구하고 고려인들을 중심으로 한인 디아스포라의 역할을 고찰한 후 한민족 전체의 과제로 제시할 계획이다. 개소식을 기념해 8월 27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에서 '백인의 식탁, 천인의 놀이터-이주에서 정주로, 고려인들의 삶과 문화를 말한다'를 주제로 토론회(사진)를 개최했다.



**'2018 한-브라질 경제포럼' 상파울루서 열려**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9월 5일 현지 진출 기업 관계자와 한인 동포 상공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8 한-브라질 경제포럼'이 열렸다. 상파울루 한국 총영사관(총영사 김학유) 주관으로 열린 포럼은 브라질 거시경제 동향과 브라질 관세·조세 브리핑, 한국 세무 안내, 한국 대학입시 및 모국유학, 현지 진출 기업 사건·사고 예방 및 대응 방안 등 총 5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대회 속초서 열려**

제18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대회가 8월 29~31일 강원도 룩테리조트 속초에서 열렸다. '한반도와 전 세계 평화정착의 길, KOWIN이 앞장서 갑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세계 한인여성리더 550명이 참가해 한반도 평화구축과 전 세계 평화실현을 위한 여성의 역할을 모색했다. 회원들은 폐회식에서 한반도와 전 세계 평화실현을 향한 의지를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내년 대회는 8월 청주에서 열린다.



**월드옥타 · 中 엔지시, 교류협력 MOU... '동북아 평화번영 준비'**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는 8월 27일 중국 엔지(延吉)시 백산 호텔에서 시인민정부와 상호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상호 지속적인 발전과 동북아 평화번영을 함께 준비하기 위해 한인 경제인들의 활동과 한국 기업들의 상품이 엔지에 진출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 MOU의 취지다. 체결식에는 월드옥타 측에서 박기출 회장과 박병철 이사장, 중국 내 지회장이 참석했고, 엔지에서 채규룡 시장 등이 함께했다.



**'한국 사위 호건 미 주지사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일 지정할 것"**

'한국 사위'로 유명한 래리 호건 미국 메릴랜드 주 주지사는 한국 전쟁 정전일인 7월 27일을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일로 지정하겠다고 8월 9일 밝혔다. 호건 주지사는 이날 아나폴리스에 있는 주지사 관저에서 60여 명의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초청해 공식 환영식(사진·왼쪽이 호건 지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야 참전용사들을 위한 환영행사를 하게 됐다"며 "내년에는 주의회 입법을 거쳐 영구적인 기념일을 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미 하와이 한인사회 최초 영자 신문 펴내 조선 독립운동 알린 강영각 선생

일제 강점기 고국과 멀리 떨어진 미국 하와이에서 독립활동을 벌인 한인 청년단체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자지 신문 등 자료가 8월 13일 처음으로 공개됐다. 독립기념관은 제73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하와이 한인사회의 민족교육 지도자이자 청년운동가인 강영각(1896~1946) 선생을 비롯한 한인 청년단체의 활동상을 담은 자료들을 이날 공개했다. 이들 자료는 강 선생의 딸 수잔 강 여사(74·하와이 거주)가 지난 6월에 기증한 것이다.

기증된 자료는 1920~1930년대 강 선생과 하와이 한인 청년단체의 활동 모습을 담은 사진첩 2권(323장)과 그가 발행인이자 주필로 활동한 영자지 '더 영 코리언(The Young Korean)' 35점, '더 어메리칸 코리언(The American Korean)' 24점 등 총 382점이다. 사진첩에는 당시 하와이 한인 청년들이 모여 고국의 독립운동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등 일제 투쟁 방향을 논의하는 장면들이 생생하게 담겼다. '더 영 코리언'은 미주 지역 한인사회의 최초 영자 신문으로, 특히 해마다 3·1절 관련 기사를 빠뜨리지 않고 전했다. 특히 일본 제국주의가 저지른 한반도, 중국, 동남아 등 침탈 행위를 보도하기도 했다. 그때 한인사회는 3·1절을 한국독립기념일로 정하고 1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태극기를 흔들며 야외 집회를 열었다. 강 선생이 한글이 아닌 영어로 신문을 발간한 것에 대해 독립기념관 측은 '한인 사회보다 20배나 큰 규모의 일본인사회가 주류를 차지하는 하와이에서 조선에 대한 왜곡된 뉴스를 바로잡고, 조선인의 우수성과 독립에 대한 의지를 널리 알리는 창구 역할을 톡톡히 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독립기념관은 "이 자료는 하와이 한인사회에서 독립운동을 어떻게 지원했는지, 강 선생이 청년들의 단합을 도모하고 청년들이 민족의식이 투철한 엘리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인



1931년에 촬영된 강영각·강영문·강영소 형제 사진(국가보훈처 제공). 8월 13일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자료 기증식에서 강영각 선생의 딸 수잔 강 여사가 기증 자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단체를 지도했는지 등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평남 강서군 증산에서 태어난 강영각 선생은 1905년 아버지를 따라 하와이 사탕수수농장 이민을 떠난 후 샌프란시스코로 옮겨 업랜드 공립초등학교와 클레어몬트 공립중학교를 거쳐 클레어몬트 포모나대학을 졸업했으며, 다시 하와이로 건너와 청년단체를 조직하는 등 한인사회의 독립운동을 이끌었다. 1997년 정부로부터 건국포장을 받았다.

그의 부친 강명화 애국지사는 대한인국민회 북미 총회장을 맡아 독립자금을 지원했다. 5남인 강영각 선생을 비롯해 그의 형 영대, 영소, 영문, 영상 선생과 사위 양우조 선생은 도산 안창호 선생이 주도한 흥사단에서 독립운동을 했다. 아버지와 아들, 사위 등 7명이 독립운동 포상을 받은 독립운동 명문가문이다. 국가보훈처는 8월 14일 강 선생의 형 가운데 후손을 찾지 못했던 영대, 영문, 영상 선생의 미전수 훈장을 조카인 수잔 강 여사에게 전달했다. **[장]**

강명화 애국지사의 5남...  
父子와 사위 등 7명이 훈장 받은  
'독립운동 명문가문'

# 알바 경력 밖에 없는 흠수저가 호주에서 성공하기까지, 자전적 에세이 펴낸 박가영 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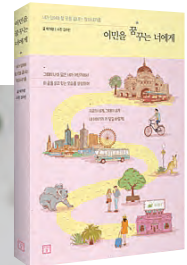
젊은이들의 삶이 너무 고단해 ‘헬조선’, ‘탈조선’이라는 말이 수년째 유행하는 가운데, 실제로 한국을 떠나 타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젊은이의 이야기가 책으로 나와 눈길을 끈다.

20대 중반에 호주로 넘어가 10년째 사는 박가영 씨의 에세이 ‘이민을 꿈꾸는 너에게’(출판사 미래의창)이다. 그는 현재 호주 멜버른에서 퓨전 한식 레스토랑 ‘수다’와 ‘네모’ 두 곳을 운영하는 오너 셰프다. “알바 경력밖에 없는 흠수저에 고작 전문대 출신”이라고 자신을 일컫는 저자가 호주에서 성공한 배경은 뭘까.

저자는 자기 어린 시절을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순간부터 어딘가 약간 비뚤어진 아이”였다고 돌아본다. 방에 틀어박혀 책만 읽고 영뚱한 생각을 하며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놀지도 않았다. 그렇게 평범하지 않은 아이가 살아가기에 한국은 척박한 곳이다. 고교 시절에는 밤늦게 PC방이나 맥도널드 같은 곳에서 알바하고 학교에서는 계속 잠만 자거나 책을 읽었다. 어른들은 그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한심한 애’로 봤다.

돈을 벌러 뛰어들던 ‘알바’ 전선에서는 온갖 굴욕적인 순간을 겪어야 했다. 비디오방에서 일할 때는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러 온 남성들로부터 끊임없이 추근거림을 당했고, 사무보조로 일할 때는 회식 노래방에서 만취한 차장급 남성으로부터 ‘업소 아가씨’로 오인당해 성추행을 당하기도 했다. 백화점 주차 도우미를 하며 한겨울 추위보다 더 견디기 어려웠던 건 매일 VIP와 임원들의 차 번호와 이름, 얼굴을 외우고 시험을 봐야 한 것이다.

“어리다는, 여자라는, 알바생이라는, 잘 웃는다는, 거절을 잘 못 한다는, 돈이 필요하다는... 내 특징들이 약점이 되고, 그 약점으로 누군가에게는 나에게 대한 권력이 생긴다는 구조가 나는 진저리칠 만큼 싫고 무서웠다. 나는 그런 권력을 준 적이 없는데, 뒤돌아서 마구 도망치고



성공한 30대 호주 동포 박가영 씨와 그가 펴낸 자전적 에세이 ‘이민을 꿈꾸는 너에게’.

싶었어. 구체적으로 이민을 생각했다기보다는, 그저 도망치고 싶었던 것 같아.” (25쪽)

그런 생각을 품다 워킹홀리데이로 호주에 발을 디게 됐고, 영주권을 받는 데 필요한 기술로 ‘요리’를 택해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유학생생활을 했다. 자격증을 따고 호텔 주방에서 일하다 운 좋게 헐값에 나온 식당 점포를 보게 되고 부동산업자의 꾀에 넘어가 계약서에 서명했다. 얼떨결에 시작한 퓨전 한식 레스토랑은 다행히 기대 이상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열심히 고민하고 노력해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한다. 그는 호주에서 ‘앨리스’란 이름으로 살고 있는데, 이전 자신과 앨리스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진다고 한다. 그만큼 인간은 환경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이 책은 저자가 자신처럼 이민을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꼭 필요한 조언을 해주기 위해 편지글 형식으로 쓴 책이다. 호주로 간 이후 정착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내용도 상당 부분 담겼다. 책 출간은 처음이지만, 그동안 인터넷 ‘브런치’ 사이트에 ‘멜버른천원앨리스’라는 필명으로 많은 글을 올려 호주 생활을 공유했다. **창**

“ 한국을 떠나 다른 곳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젊은이의 이야기 답아 ”

## 멕시코·쿠바 한인 후손들, 모국서 제빵·제과 직업연수

재외동포재단은 멕시코 쿠바 한인 후손인 차세대 한인의 안정적 사회 진출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멕시코·쿠바 한인 후손 16명을 초청해 8월 7일부터 3개월간 직업연수에 들어갔다.



경기도 용인 강남대에서 열린 직업연수 개회식에는 윤신일 강남대 총장, 기춘 재외동포재단 사업이사 등 관계자와 16명의 한인후손 등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경기도 용인의 강남대에서 10월 26일까지 3개월간 제빵·제과 분야를 기초부터 최신 트렌드까지 집중적으로 배우고 카페와 베이커리 업체 현장 견학에 나선다. 정체성 함양을 위해 한국어·한국사 교육, 한국어민사박물관·한국 민속촌 등 역사 문화 탐방, 멘토링 프로그램 등에도 참여한다.

연수 후반기에는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만든 빵과 과자를 나누거나 김치를 담가주는 봉사활동을 한다.

기춘 재외동포재단 사업이사는 “교육을 받은 후 현지에서 취업과 창업이 가능하도록 맞춤형으로 준비한 연수”라며 “참가자들은 교육과 체험활동을 통해 모국 이해를 심화하고 한민족으로서의 자긍심도 높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러시아·카자흐 고려인 청소년들, 모국서 ‘한국어 캠프’

재외동포재단은 러시아·카자흐스탄의 고려인 청소년을 초청해 정체성 함양을 위한 한국어 집중 캠프를 8월 9~17일 실시했다.



러시아·카자흐스탄의 고려인 청소년 90명을 초청한 ‘한국어 집중캠프’는 한국외국어대 글로벌캠퍼스에서 열렸다.

만13~17세 청소년 78명과 인솔교사 등 총 90명이 참가한 캠프는 경기도 용인의 한국외국어대 글로벌캠퍼스에서 열렸다.

이들은 한국어 능력에 따라 10개 반으로 나눠 수업을 받고 K-POP·민속놀이·스포츠 응원 문화 배우기 등 한국 문화 체험에 참가했다.

연수 기간 파주 임진각 통일전망대와 제3 땅굴을 답사하고, 수원외국어고등학교 러시아어학과 학생들과의 교류활동 시간도 가졌다.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타 지역보다 한국어 학습 환경이 취약한 CIS(독립국가연합) 지역의 고려인 차세대를 위해 지난해부터 한국어 집중캠프를 열고 있다”며 “모국어 학습은 한민족 정체성을 키우는 첫걸음인 만큼 한국어 교육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해외 입양동포 초청 한국어 집중캠프

재외동포재단은 프랑스 한인 입양동포 24명과 자녀 26명 등 50여명을 초청해 정체성 확립을 돕는 ‘2018 재외동포 차세대 한국어 집중캠프’를 8월 18일부터 25일까지 실시했다.



프랑스 한인 입양동포와 자녀가 참여한 ‘2018 재외동포 차세대 한국어 집중캠프’가 안양시 경인교육대 경기캠퍼스에서 열렸다.

이들은 경기도 안양시의 경인교육대 경기캠퍼스에서 아동반과 성인반으로 나뉘어 수준별 한국어 집중교육을 받았다.

태권무, 판소리, 수목화 등 전통 예술 체험과 K팝 댄스 배우기 등을 통해 한국문화를 익히고 경복궁과 한옥마을을 둘러보는 서울 역사 유적 탐방에도 나섰다.

재단은 캠프 기간 친생모와의 상봉을 희망하는 참가자들의 사연도 적극적으로 소개해 자비에 모토(한국명 신동은) 씨가 친부모와 극적으로 상봉하기도 했다.

한우성 이사장은 “재외동포의 외연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려고 입양동포를 대상으로 마련한 첫 캠프였다”며 “참가자들이 모국의 언어·문화·역사를 배워 한민족의 일원이라는 유대감이 형성되도록 도왔다”고 밝혔다. [장]



# 바른 말 고운 말

## 귀에 대고 하는 말은 귀엣말

“귓속말을 하지 마십시오.” 남의 귀에 대고 소곤소곤 이야기할 때, 그 얘기를 듣지 못하는 사람은 소외된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얘기를 나누는 사람끼리는 왠지 모르게 더 깊은 친밀감을 느끼게 되죠.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는 단어 속에 담긴 뜻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손짓이나 자세, 행동도 느낌을 전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남의 귀에 대고 소곤소곤 얘기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 ‘귀엣말’이 아니라 ‘귓속말’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귓속말’이 아니라 ‘귀엣말’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마찬가지로 ‘귀엣말’이 바른 표현이라면, ‘귓속말하다’가 아니라 ‘귀엣말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습니다.

남의 귀에 입을 대고 소곤거리며 얘기하는 것. ‘귓속말’이 아니라 ‘귀엣말’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 미래의 주인공과 범행의 장본인

“우리의 미래는 여러분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은 나라를 이끌어 갈 미래의 장본인입니다.”

어떤 사건이나 일의 주요 인물을 가리키는 말로 ‘주인공’과 ‘장본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일상 대화에서 이 두 말은 서로 비슷한 의미로 혼용돼 쓰이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은 ‘주인공’과 ‘장본인’은 다른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주인공’은 소설이나 연극, 영화 등에서의 중심인물, 혹은 어떤 일에서 중심이 되거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장본인’은 나쁜 일을 빚어낸 바로 그 사람이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의 주요 인물은 ‘주인공’, 다분히 부정적인 사건의 주요 인물은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의 말은 ‘미래를 이끌어갈 장본인’이 아니라 ‘미래를 이끌어 갈 주인공’이라고 해야 합니다.

## 낱말 맞추기 \_ 퀴즈를 풀며 정확한 표현을 익혀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 ▶ 오른쪽 방향 열쇠

1. 준비가 있으면 걱정이 없다는 뜻의 사자성어
4. 옥내의 무대가 아닌 탁 트인 마당에서 벌이는 민속놀이
7. 사람 또는 물건의 이름을 차례대로 적은 표
8. 갑돌이와 ‘○○○’가 한마을에 살았죠
9. 아버지와 어머니를 합쳐 부르는 말
10. 차를 담아 마시는 잔
11. 풍량이 바람이 부는 지역을 벗어나 더는 진폭이 발달하지 않고 감쇠해가는 파도. 파장이 길어 멀리까지 전파된다
12. 방심하여 잘못된. 또는 그로 인해 빚어진 것
14. 결혼한 남자의 아내의 어머니
15. 국회의원의 월급을 의미한다
18. 계속해서 근무하는 사람이 주기적으로 받는 일정한 보수
19. 바닷속에 있다고 하는 용왕의 궁전
20. 새해를 맞아 친지들에게 앞으로 잘되기를 기원하는 말. 반대말은 악담
21. 흠뻑 많아서 넉넉함. ‘퐁○’
23. 헤어짐. 인생사 만남이 있으면 이것이 있기 마련이다
24. 하나의 종교를 세운 사람. 또는 종교 단체의 우두머리
26. 충청북도 보은군과 괴산군, 경상북도 상주시에 걸쳐 있는 산. 법주사(法住寺)가 있다
27. 이동녕, 이시영, 김구 선생 등이 일제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중국 상해, 중경에 임시로 세운 대한민국 정부

### ▶ 아래쪽 방향 열쇠

1. 이름만 그럴듯하고 실속은 없다는 뜻의 고사성어
2. 명주실로 광택이 나게 짠 피륙의 총칭
3. 만 60세 생일을 축하하는 한국의 전통문화로 회갑연(回甲宴)이라고도 한다
4. 부족함이나 손실, 적자, 불이익 따위를 이르는 말. ‘-’기호를 이르는 말
5. 판소리 흥부전에 나오는 흥부의 형
6. 어머니의 언니나 여동생을 일컫는 말
13. 한국의 전통적인 음식. 손으로 적당히 뜯은 밀가루 반죽에 다양한 채소를 곁들여 끓여 먹는다
14. 백두산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
15. 옛날부터 전해 오는 관습으로 계절에 맞추어 행해지는 고유의 행사와 풍습. 대체로 농경문화를 반영하고 있어 농경의례라고도 한다
16. 전통 가옥에서 가마솥이나 온돌방에 불을 때기 위해 만들어 놓은 구멍
17. 불을 피워 놓고 쓰게 만든 큰 그릇. 난방이나 취사용으로 쓰는 화로
22. 먹기 좋게 가공한 음식 혹은 그 가공 행위 자체를 의미한다
24. 틀어지거나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고침
25. 한집안의 살림살이를 도맡아서 주관하는 여자 주인

### ▶ 2018년 8월호 정답

단	풍	동	백	입	동
수	저	부	자	지	갑
질	금	은	사	동	
화	장	주	점	오	선
로	소	사	정	설	
	나	경	마	수	달
유	비	무	환	천	자
	빔	절	구	동	제
	밥	기	마	차	비

## 기행

## 김지영(중국) 동포문학상 중고등부문 최우수상

한 달 동안 부모님도 친구도 없는 낯선 마을에서 내가 견딜 수 있을까? 나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부모님의 직장으로 인해 상해에서 거주했다. 일 년에 한 번 건강검진 차원으로 일주일 간 한국에 다녀오는 일 외에는 일 년 내내 외국인 마을과 미국학교를 전전하는 일상이었다.

그래서인지 학교에서 한 달간 중학교 2학년 학생들 열여섯 명을 선정해 윈난 성에 보내준다는 말을 들은 날, 생각할 것도 없이 귀신에 홀린 사람처럼 프로그램 지원서를 제출했다. 위의 질문은 고려해 보지도 않은 채.

그저 무리한 일상과 학업에서 탈출하려는方便이었던 윈난 여정은 공식적인 출발 다섯 달 전부터 내 일상을 압도했다.

삼 개월 간에 걸쳐 지역 문화와 역사를 스스로 공부하고, 한 달간 윈난에 있을 때 연구할 주제를 선택해야 했다. 학교를 떠나있을 동안 꾸준히 진도에 뒤처지지 않게 자율학습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시간은 놀랍게도 빠르게 흘러 9월에 신청서를 넣은 나는 이듬해 3월, 항상 함께 살아온 부모님을 떠나 반평생을 살아온 상해로부터 2천km 밖의 작은 마을 시조우로 떠나게 되었다. 동급생 15명과 지도 선생님 2명과 함께 공항에 내렸을 때 내가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내가 알던 중국과 완전히 상반되는 기이한 풍경이었다. 푸른 하늘. 사방을 요새처럼 가로막아 시야를 가리는 붉은 산. 내 발 밑에 바다처럼 펼쳐진 유채꽃. 또 그사이를 비집고 나와 수줍게 얼굴을 내민 안개꽃.

우리의 숙소는 80년 전 지어진 가정집을 최근에 보수한 건

물이었다. 4명의 다른 학생들과 같은 방을 쓰게 되었다. 외동 딸로 혼자 방을 사용했고, 그 흔한 캠프도 참여해 본 적이 없어서 이때가 처음으로 다른 이와 방을 공유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오래된 건축물인 만큼 방음도 꼼꼼하게 되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 16명 모두가 어디를 가든 종종걸음으로 걸어야 했다. 아침저녁으로 샤워하기 위해 줄을 서야 했고, 위층을 차지한 학생들의 발소리는 내 잠을 설쳤다.

덕분에 공동체 생활로 인해 다른 이를 배려하는 것이나 주변 환경에 내가 미칠 영향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처럼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고 아직도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습관들을 학습할 수 있었다.

15명의 학우와 한 달이란 오랜 시간 동안 가깝게 생활한 만큼 시시콜콜한 경험까지 함께하기도 했다. 어느 날은 함께 참가한 친한 친구와 크게 다투고 학교에선 말 한번 섞어보지 않은, 즉, 낯선 사람이나 다른 학생에게 하소연하고 울음을 터뜨리는 일도 있었다. 목소리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아이였는데, 그 순간에 옆에 앉아 있어 준 것만으로도 어찌나 위안이 되던지!

우리는 하루 중 한 끼는 숙소가 아닌 마을 식당에서 먹는 것이 필수였는데, 식당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중 마을 주민분들과 말을 트는 일이 잦았다. 그 중 시장에서 알게 된 '리' 할머니는 항상 나와 다른 학생들을 볼 때마다 직접 키우신 당근을 나누어 주셨다. 한때 검었을 머리카락은 한 올



도 빠짐없이 희게 새어 마치 설화 속에 산신을 뵈는 것 같았다. 항상 즐겨 입으시는 푸른 상의는 실오라기 하나 터져 나오지 않고, 전신의 절반만 한 바구니를 채소로 가득 채워 머리에 이고 걸으시는 모습이 길가에 그 누구보다 깨끗하고 당당하신 모습이였다.

오랫동안 머문 상해에서도, 하물며 몇 년을 함께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마주친 사람에게 눈인사를 건네는 것조차 드물었는데, 이 여행은 학생들의 친화력을 이상하리만치 상승시키는 것 같았다. 모르는 사람에게 인사하는 것은 물론이요 어떤 학생들은 길에서 보행자의 물건을 들어드리고 저녁 식사에 초대받기도 했다. 함께 참가한 학생들과 새로 쌓은 인연도 기억에 남지만, 상해로 돌아온 후 몇 달째 잊히지 않는 것, 가장 그리운 것은 마을 주민들의 따뜻한 인정이다.

그 동안 내 나라가 아닌 타지에 오랜 시간 동안 머물며 중국인에 대한 편견은 쌓이기만 했었다. 중국인은 시끄럽게 떠든다, 중국인은 남을 배려하지 않는다, 중국인은 신호등을 지키지 않는다, 중국인은 새치기한다, 중국인은 비도덕적이다 등등. 나는 말이 완벽히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위에 벽을 짓고 눈을 가리고 다닌 것일지도 모른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원난에서 지낸 한 달간 나의 이런 편협한 견해는 깨끗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긴 여정 후 가장 아쉬움이 남았던 것은 마을 사람들과 더 친해지지 못한 점이다.

나는 웬만한 운동엔 소질이 없어 자전거 타기를 즐겼는데, 태어나서 그토록 자유로운 적이 없었다. 당시 오후에는 바람이 세계 불었는데, 시원한 기류가 내 얼굴을 가로질러 갈 때 그 해방적인 느낌은 이루 설명할 수 없었다.

날이 좋으면 산 위에 아기자기하게 지어진 작은 마을들도 눈 안에 들어왔다. 마을들은 멀리서도 눈에 띄게 지역의 붉은 흙과는 상반되게 푸른 기와와 흰 벽을 자주 사용하는 건축 양식을 지녔다. 평소라면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기 바빴겠지만, 그런 일을 대비해 우리는 휴대전화라곤 십 년 전 노키아만을 소지하고 있었다. 2018년에 노키아를 들고 여행하는 중학생

이라니! 휴대전화기가 없으니 강을 마주하고 딱히 할 일이 없어 멍하니 산 너머를 바라보던 나를 이상한 눈초리로 주시한 현지인들이 생각한다. 그야말로 기이한 여정이라 볼 수 있지 않은가?

물론, 한 달간 좋은 일만으로 가득 찬 것도 아니었다. 일일이 따져보면, 유난히 행복했던 시간보단 그 어느 때보다 컸던 정신적 압력으로 인해 마음고생한 시간이 더 많을 것이다. 그런데도 나는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 해도 같은 선택을 할 것이다. 한 달간의 극단적인 희로애락만큼 내 인생에 다시 찾아보기 힘든 기회라는 것만큼은 확실하기 때문이다.

새벽에 몰래 살금살금 방을 빠져 나오면서 나를 맞이했던 저물어가는 별들처럼 이 경험의 소중함을 깨달았을 때는 기억이 퇴색되기 시작한 후였다. 그래서 더 간절히 가슴에 새기어 간직하려 노력한다. 한 번도 몰랐으면 좀 마음이 가벼웠을 것, 적막한 상해 한복판에서 피폐한 삶에 다른 방식의 생활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준 마을 시조우에 감사한다. 한밤중에 눈을 가리는 형광비색으로 빛나는 건물 사이에서도 적막함을 머리맡에 두고 살았던 나에게 푸른 산의 검은 그림자 아래서 고요함 속에 받은 위안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돌아온 지 두 달이 지난 후에도 무심코 자기 전 창 밖을 바라보면 칠혹 같은 하늘을 수놓아 밤을 밝히던 별들이 눈앞에 아른거린다. 어찌나 선명하던지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미세하게 푸른색 붉은색 흰색으로 다르게 빛을 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원난에선 사람 목소리보다 새 지저귀는 노랫소리를 더 자주 들었다. 자동차나 오토바이 바퀴보단 말발굽소리와 자전거 벨 소리가 더 귀에 익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혀보다는 눈과 귀를 더 자주 사용했다. 그럼에도 내 일상은 더 흥미로운 대화, 더 단단해진 우정으로 풍요로웠다. 항상 사람 사이에 살아가며 사람을 그리는 나의 인생도 어찌 보면 하나의 길고 긴 기이한 여정이다. 그래서 짧게나마 고요하고 새로웠던 삶이 더 주옥같은 것일 수도 있다. 장



# 중국에서 건너온 ‘짜장면’, 누구나 좋아하는 ‘한국 음식’ 으로 재탄생

부드러운 식감에다 값까지 싸 서민들의 외식 문화를 대표하는 음식



1. 중국음식의 대명사이자 서민의 외식 문화를 대표하는 음식인 짜장면.
2. 짜장면 그릇에 면발과 짜장을 넣는 모습.

한국인치고 짜장면을 모르는 이가 어디 있을까. 삼척동자도 아는 대중음식이 바로 짜장면이다. 해외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 음식이 또한 짜장면이다. 부드럽고 매끄러운 식감에다 값까지 무척 싼 편이어서 주머니 걱정할 필요가 별로 없다. 중국집에 가서 다른 메뉴를 먼저 먹더라도 짜장면은 후식처럼 곁들여줘야 제대로 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다. 중국음식의 대명사이자 서민들의 외식 문화를 대표하는 음식인 짜장면이 이 땅에 뿌리내린 지 어언 100여 년. 바다 건너온 중국인들이 만들어낸 음식이건만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재탄생해 널리 사랑받고 있다. 그 본향인 인천 차이나타운. 한국 문화와 중국 문화가 공존해 ‘한국속의 작은 중국’으로 불리는 이곳에서 먹어보는 짜장면 맛은 한결 새롭다.

중국식 된장인 춘장에 국수를 비벼 먹는 작장면(炸醬麵)이 바로 짜장면의 시조다. 여기서 ‘작’(炸)은 불에 튀긴다는 뜻이고, ‘장’(醬)은 된장 등 발효식품을 의미한다. ‘면’(麵)은 밀가루 국수다. 즉 춘장을 볶아 면 위에 얹어 먹는 국수 요리인 셈이다. 짜장면은 재료와 조리법에 따라 다양하게 진화했다. 일반짜장을 비롯해 간짜장, 유니짜장, 삼선짜장, 쟁반짜장, 사천짜장, 고추짜장, 유슬짜장 등 그 종류가 많다. 하지만 대표 주자는 역시 일반짜장이다. 워낙 대중적이다 보니 식당에서 ‘짜장면 달라’고 하면 당연히 일반짜장이 나오게 된다.

짜장면의 기본 재료는 양파와 돼지고기, 볶음춘장, 그리고 밀면이다. 식당과 요리사에 따라 대파 등이 더 들어가기도 한다. 양파와 돼지고기를 알파하고 네모지게 썰어둔다. 돼지고기는 등심이 일반적이다. 콩을 재료로 하는 춘장은 생춘장을



볶아낸 볶음춘장을 준비한다. 여기에 밀가루가 중심이 된 밀면이 추가되면 짜장면 재료준비는 완료된 셈이다.

### 춘장과 밀면이 연출하는 맛의 세계

짜장면은 말 그대로 짜장과 면을 만드는 두 가지 과정을 거친다. 먼저 짜장 만들기다.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붓고 가스 불로 튀긴 다음 돼지고기를 넣어 볶는다. 고기가 웬만큼 익으면 양파, 대파 등 야채를 넣고 국자로 고루 저어준다. 그리고 이들 야채가 60% 정도 익었다 싶을 때 춘장을 엇고서 전체적으로 젓고 뒤집기를 반복한다. 야채가 완전히 익은 상태에서 춘장을 넣으면 야채 본연의 모습과 맛이 제대로 살아나지 않는다.

다음은 밀면 만들기. 제면기에서 가늘게 뽑혀 나온 면발을 물이 펄펄 끓는 면술에 넣고 면봉으로 2~3분 동안 휘휘 저어준다. 그 과정에서 시원한 바람이 들어가 더욱 쫄깃해진다. 짜장과 밀면을 프라이팬에 넣고 익히는 과정도 중요하다. 프라이팬은 밑이 둥글고 두꺼워 열을 고르게 받도록 만들어졌다. 짜장과 밀면을 한데 넣고 팬을 흔들며 재료를 높이 띄웠다가 받았다가를 반복하는데, 이게 바로 짜장면의 겉과 속을 두루 익히는 기술이다. 센 불로 요리해도 짜장면이 타지 않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 짜장면의 상차림은 비교적 단순하다. 새콤달콤한 단무지와 아삭아삭한 양파는 춘장에 찍어 먹으면 맛이 더욱 오묘해지고 중국식 절임 반찬인 자차이 무침은 꼬들꼬들한 느낌이 일품이다.

짜장면은 상에 차려지자마자 젓가락으로 뒤집어 고루 섞어줘야 한다. 그래야 식감이 좋다. 한참 뒤에 섞으면 그사이에 면발이 굳어서 잘 섞이지 않고 맛도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짜장면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요리사의 솜씨와 함께 손님의 정성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상**



3. 짜장의 재료인 돼지고기, 양파, 볶음춘장, 밀면.
4. 프라이팬에서 익혀지는 돼지고기, 양파 등 식재료. 여기에 볶음춘장을 추가해 센 불로 젓고 뒤집기를 반복한다.
5. 인천 차이나타운의 짜장면거리.



## 짜장면의 '本郷' 인천 차이나타운

짜장면을 제대로 알려면 화교와 인천 차이나타운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인들이 인천에 와서 만들었던 짜장면이 현지화하며 한식으로 거듭났기 때문이다. 짜장면의 역사는 국내 유일의 짜장면박물관(등록문화재 제246호)에 가면 상세히 알 수 있다. 이 박물관은 100여 년 전에 짜장면을 처음 개발해 판매했던 '공화춘'(共和春) 건물로 개보수 과정을 거쳐 2012년 정식 개관했다.

한적한 어촌 마을이던 제물포에 중국인들이 이주하기 시작한 건 1880년대 초반이었다. 조선의 개항에 따라 웅봉산 자유공원 아래에 있는 지금의 차이나타운 언덕에 1884년 청국 조계지(租界地)가 5천여 평 규모로 설정되면서 '청관(淸館)'이라는 이름의 청국 영사관이 생겼고, 제물포항에서 일하는 부두 노동자들도 중국에서 대거 들어왔다. 그 조계지 일대에 중국음식점이 생긴 것은 당연한 일. 중국 노동자들은 서해 건너의 산둥성(山東省) 출신이 많았는데 이들이 값싸게 먹을 수 있는 음식



짜장면의 역사를 보여주는 짜장면박물관 전시실.

식으로 중국식 짜장면이 함께 들어왔다.

지금 즐겨 먹는 한국식 원조 짜장면의 모태가 바로 공화춘이다. 중국 산둥 출신인 우희광이라는 젊은이가 1900년대 초반에 '산동회관'이라는 상호로 첫 영업을 시작했다가 1911년 청나라가 중화민국이 되면서 공화춘(1983년 폐업)으로 간판을 바꿨다.

중국 공산화와 한국전쟁 등 격동기를 거치며

짜장면은 현지화의 길로 더욱 빠르게 내달린다. 재산권 불인정 등 한국 정부의 차별정책으로 살길이 막막해진 화교들은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춘장과 식재료를 짜장면 만들기에 박차를 가했다.

이와 함께 중국음식점을 차리는 한국인들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짜장면도 완전히 한국 음식화하기에 이른다. 이와 관련해 문화관광부는 2006년 짜장면을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100대 민족문화상징'으로 선정했다. 인천시 중구의 차이나타운에는 현재 30여 중국식당들이 성업 중이다.

## 제20회 해외동포상 추천

20회를 맞는 <KBS해외동포상>은 2019년이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라는 점을 고려해 아래와 같은 자랑스런 해외동포를 발굴, 시상하고자 합니다.

- 독립운동에 기여한 분과 그 후손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인 분
- 독립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민족의식 고취에 기여하신 분
-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신 분
- 한민족 위상과 대한민국 국익 향상에 기여하신 분

후손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훌륭한 분들을 추천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KBS해외동포상 사무국(☎ 02-781-223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상부문: '대한민국 100년상' (가칭)으로 시상부문 단일화
- 시상인원: 0명(개인·단체 구분 없음)
- 상금: 각 수상자당 원화 3,000만원(개인·단체 구분 없음)
- 접수마감: 9. 28(금)
- 수상발표: 2018. 12. 20(목) 방송 (KBS 1TV 및 라디오)으로 발표 예정

##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지리는 높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정부 3.0이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정 과제에 대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입니다.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모아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고 특별한 내일을 준비합니다. 개인의 행복이 커질수록 함께 강해지는 새로운 대한민국 그 희망의 시대를 정부 3.0이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 중점 추진 과제

-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민·관 협치 강화
-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정부 내 칸막이 해소, 협업·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 운영 시스템 개선,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창업 및 기업 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www.hansang.net



하나된 한상,  
함께 여는 대한민국  
United Hansang, Driving Korea

제17차  
세계한상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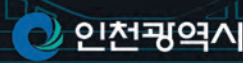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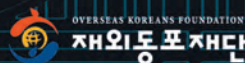
THE 17TH WORLD **KOREAN** BUSINESS CONVENTION

2018. 10. 23(화) \_ 25(목) 인천 송도컨벤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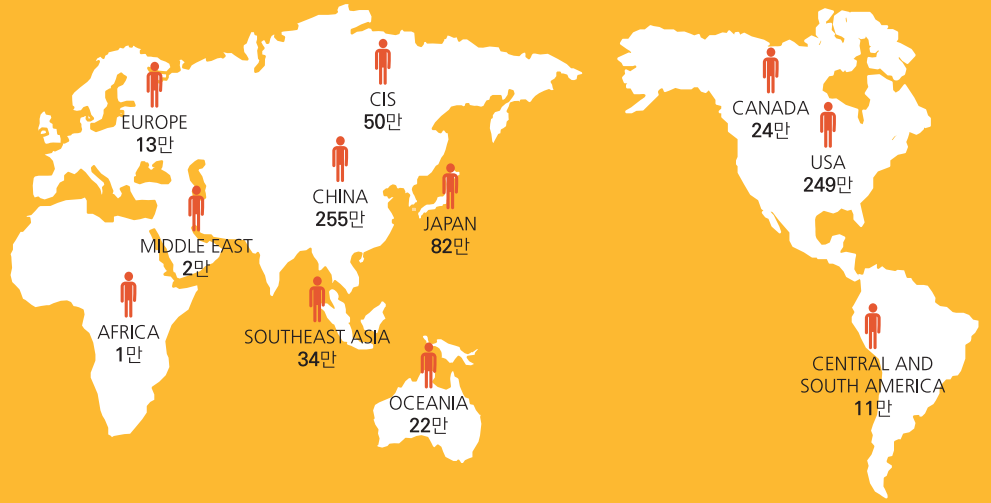
주최



주관



매일경제·MBN



이민으로  
 해 지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그 힘은 740만  
 재외동포입니다!

재외동포재단, 세계 740만 재외동포와 함께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스스로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며, 역량을 결집하여 모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